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le Stress Experienced by Married Working-Mother Salesclerk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교수 이 정 우*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정 진 희**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 Lee, Jeong-Woo

Faculty Of Liberal Arts & Basic Sciences,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Jeong, Jin-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role stress perceived by employed housewives working in sales departments, and further, to devise coping strategies that can help reduce stress resulting from their multiple roles.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ed of married women who were working in sales departments, who have at least one child, and who live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A total of 343 out of 450 originally distribu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this study.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1. The housewives in sales departments felt stress most severely in their role as a mother. Next were the roles as a wife, housewife, daughter, daughter-in-law, and working woman, in that order.

2. It appeared that age and the motive for employment affected the overall level of role stress among housewives. The two variables (age and the motive for employment) explained about 23% of the variance. The younger they were the higher was the level of role stress. Also, if they were working for an economic reason (to support the family), they tended to be more stressed ou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as baseline data for policy-making, consultation,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housewives working in sales departments, an area that has hardly been explored.

▲주요어(Key Word) : 판매직 취업주부(Married Working-Mother Salesclerks), 역할스트레스(role stress)

1. 서론

지난 30년 간 주목할 만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산업화의 진전과 직업의 분화 및 전문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80년

40.0%에서 1999년 47.9%로 1980년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또한 전국 남·녀 1,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의 한 조사(여성부, 2001)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75.2%가 맞벌이를 희망하고 있고, '여성이 평생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수 정도(49.1%)로 나타나(한국일보, 2001년 7월 21일 2면), 기혼 여성의 취업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저자 : 이정우(E-mail : ejw@sookmyung.ac.kr)

** 교신저자 : 정진희(E-mail : ok312@hotmail.com)

여성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와 판매직(35.1%), 단순노무직(15.1%), 사무직(13.4%) 순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또한 중앙고용정보관리소(2000)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을 들어 취업한 기혼 여성은 11만2000여명이며, 그 중 80%인 8만9000명이 서비스·판매근로자와 단순노무직 중에 취업했다고 한다(동아일보, 2000년 11월8일 30면). 이는 판매직이나 단순 노무직의 경우 기혼여성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쉽게 취업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부의 취업이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돼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업주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주 연구대상이 중산층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이미숙, 1995), 그 가운데도 사무직(서지원·이기영, 1997; 이미선, 1995; 조희금, 1998)과 전문직(이기영·구혜령, 1992; 이미선, 1995; 장윤옥, 1993; 전영자, 1992)을 중심으로 연구했고 몇몇 연구만이 생산직(김혜경·신현옥, 1990; 조희금, 1995; 한정혜·박혜인, 1992)에 초점을 두었으며, 주부들이 많이 취업해 있는 판매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취업주부 중에서도 중간 수준의 학력을 지닌 주부가 손쉽게 취업하고 있는 업종인 판매직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한편 꾸준히 증가하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적인 성별분업의식은 변화하지 않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전히 주부에게 있다(Vannoy-Hiller & Philliber, 1989; Warner, Lee & Lee, 1986; Wheelock, 1990). 또한 취업주부 가정의 남편은 전업주부 가정의 남편보다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행 정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이미숙, 1995). 최근의 한 조사(여성부, 2001)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가사부담률이 81.1%로 나타나(한국일보, 2001년 7월 21일), 경제활동 여부가 여성의 가사분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많은 취업주부들은 직장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한다(서지원·이기영, 1997; 정순희, 2001; 최자령, 1991; Wiersma & Van Den Berg, 1991). 즉 취업주부는 자신에게 기대되는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 능력에 대한 한계로 과중한 역할 부담을 지게 되며, 이러한 역할과중은 그들이 경험하는 과중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또한 취업 주부의 취업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출산, 자녀 양육 등의 가정 내 역할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통계청, 2000) 나타나 취업 주부의 직업적 역할과 가정적 역할간에 상당한 갈등적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도 잘 나타난다. 20대 중반까지는 61%까지 올라가다 30대 중반에는 47%대로 떨어지고 이후 40대 중반에는 63%로 다시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M커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한겨레, 2001년 4월25일 19면). 이른

바 노동단절 곡선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20~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외면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연구 초기에는 가정내의 역할인 주부, 어머니, 부인으로서의 역할갈등을 다루고 있었으나(이연주, 1984; 임정빈 외, 1986) 최근 들어 취업주부의 가정과 직업은 분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므로, 취업주부의 직업인 역할과 가정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다룬 연구(신기영·옥선화, 2000; 이형실, 2001; 정문자·이미리, 2000; 정순희, 2001)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가족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있고 있거나, 취업주부를 전체 동질집단으로 다루거나, 혹은 전문직·비전문직의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체 기혼 취업여성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판매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직장인 역할과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가사 역할, 그리고 딸·며느리 역할이라는 다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역할스트레스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여 다중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인적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판매직 취업주부를 위한 정책입안, 상담 및 교육적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판매직 취업주부에 관심을 돌렸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직 취업주부가 인지한 역할스트레스는 어떠한가를 살펴본다.

둘째, 판매직 취업주부의 전체 및 하위영역별 역할스트레스인 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판매직 취업주부의 특성

여기에서는 판매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판매직 취업자의 통계를 이용하여 판매직 취업주부의 특성을 미루어 짐작해 보고자 한다. 그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통계조사 기준이 1985년과 1990년에는 직업분류를 판매종사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1995년 이후의 통계자료는 직업분류를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판매직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를 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나 있다. <표 1>에서 보면, 1985년 판매직 여성취업자 가운데 30세 이상 연령층의 비율이 약 75%이고, 최근 1999년 판매직 여성취업자 가운데 30세 이상은 약 80%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1993년 첫 선을 보인 할인점이 매년 급팽창을 거듭 해, 전국의 점포수가 2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서울경제, 2001년 8월 30일), 할인점이 신규점을 열 때마다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파타이머직에 실제 채용인원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사람이 지원하고 있는 추세(내외경제, 2001년 8월 25일)를 감안해 볼 때, 취업조건이 되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기혼 여성에게 대형 할인점 등의 판매직은 인기 직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판매직 여성취업자의 연령계층별 분포

단위 : 1000명

판매직 여성취업자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전체	1,065	1,243	2,631	2,962	2,818	2,912
15-19세	22	35	54	74	74	80
20-24	98	116	265	264	239	252
25-29	14	115	230	255	240	241
30-34	160	205	341	350	302	304
35-39	170	194	468	503	512	489
40-44	146	173	425	524	500	529
45-49	129	144	295	351	345	368
50-54	91	116	241	255	252	260
55-59	55	74	157	198	180	181
60세이상	57	70	154	189	176	208

- 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 2)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1), 2000여성통계연보, 212-219에서 재구성함
- 3) 1985년과 1990년은 판매종사자를 의미하며, 1995년 이후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를 의미함

한편 판매직 취업자의 교육정도를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0), 그들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00년 판매직 취업자는 월평균 988,856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직종평균임금인 1,313,910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www.nso.go.kr). 또한 판매·서비스직 취업주부의 일 평균 근로 시간수는 1999년 노동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8시간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2. 역할스트레스 개념 및 하위영역

최근의 한 조사(2001)에 의하면 현재 여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취업시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것'(39.8%)이라고 응답함(경향신문, 2001년 7월23일

33면)으로써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은 직업 역할과 가정 역할을 동시에 양립시켜야 하는 무거운 부담감을 지니고 있고, 이에 따라 취업주부들은 주부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기대와 실제 수행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취업주부들은 남편과 비교해 볼 때, 과중한 역할들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즉 다중 역할로 인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직업 생활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직업활동과 주부로서의 역할 중 그 어느 것도 만족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가정 생활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김경신·김오남, 1996; 안선자·이정우, 1996;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이연숙 외 3인, 1991; Duxbury & Higgins, 1994; Googins & Burden, 1987; Hochschild, 1989). 이러한 연구들은 다중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혼 취업여성인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 역할에 분산시켜야 하므로 갈등과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역할 긴장이론을 뒷받침해 준다.

대체로 취업주부는 직장일과 가정이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 역할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역할스트레스는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 직장인 역할 등을 수행할 때 각각 분리된 역할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기대될 때, 취업주부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시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험될 수 있다. 즉 기대되는 모든 일을 다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중 역할의 부담 속에서 역할 과중을 겪게 되며, 이러한 역할과중은 그들이 경험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주부들이 겪게 되는 역할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수행이나 두 역할사이의 긴장, 갈등 또는 역할과중, 스트레스, 노동부담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취업기혼여성들이 겪는 역할긴장이나 역할갈등은 개념상의 큰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으며(조희금·이연숙, 1998), 연구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류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전영자,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할과중을 취업주부가 경험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보고(Monat & Lazarus, 1985; Pearlin & Schooler, 1978; Small & Reily, 1990), 역할스트레스란 판매직 취업주부가 직장인 역할과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가사 역할 그리고 딸·머느리역할이라는 다중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에 대한 개인의 인지정도로 정의하고자 한다.

역할스트레스의 각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 역할스트레스 :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란 자녀와 대화나누기·학습지도·건강관리 등의 어머니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의미

한다.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취업 주부들은 어머니 역할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박성옥·김정훈, 1995; 전영자, 1992), 다른 어떤 영역보다 부모역할과 직업역할사이에서 역할긴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미림·이기영, 1995; 이연숙 외 3인, 1991; 임혜경·임정빈, 1995).

(2) 가사 역할스트레스 : 가사 역할스트레스란 집안 일·가족 행사 참석하기·생활용품 구매 등의 가사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의미한다. 한국여성개발원(1997)의 한 조사에 의하면, 취업 주부의 84.6%가 본인이 직접 가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청(1999)의 자료에 의하면, 취업주부는 음식준비 및 정리에 96.5% 참여하는 반면에 맞벌이 남편은 8.8%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사 역할수행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3) 아내 역할스트레스 : 아내 역할스트레스란 남편의 내조·정서적 지원·성생활 등의 아내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의미한다.

(4) 딸·며느리 역할스트레스 : 딸·며느리 역할스트레스는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의 간병·정서적 지원 등의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의미한다. 기혼 여성은 취업을 하더라도 여전히 노인에게 대한 일차적 보호제공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보호제공과 직업 활동사이에서 역할상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5) 직장인 역할스트레스 : 직장인 역할스트레스는 직무수행·직장생활 등의 직업인 역할과 아내, 어머니, 가사, 딸·며느리로서의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긴장이나 부담감 같은 심리적 차원과 이들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주는 시간과 에너지 부족 등을 의미한다. 조희금·이연숙의 연구(1998)에 의하면 생산직 취업 주부들은 자녀나 집안 일의 영향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여기서는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판매직 취업주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²⁾

2) 연구자의 필요나 관점에 따라 개념상의 큰 구분없이 역할갈등, 역할긴장, 역할스트레스, 역할과중, 노동부담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으므로, 관련변인고찰에서도 위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개인관련 변인 중에서 취업 주부의 학력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직업-가정갈등이 낮아진다는(임혜경·임정빈, 1995)일관된 결과를 보이지만, 연령이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역할갈등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정혜정, 1985)와 연령과 역할갈등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최자령, 1991)와 생산직 취업주부의 경우,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나 집안 일 때문에 직장생활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연구결과(조희금·이연숙, 1998)가 있다. 한편 성역할태도와 완벽주의성향이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의 심리정서적 갈등이 낮아지고 취업 주부 자신들의 태도 및 가치관이 심리정서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장혜경·김영란, 1998)를 토대로, 성역할태도를 관련변인으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취업주부 자신의 성격이 완벽을 추구할수록, 다중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을 개인관련변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가정관련 변인으로는 가사조력자유무, 취업에 대한 남편찬성도, 취업에 대한 자녀찬성도, 부부간 의사소통도를 선정하였다. 이은희(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부부가 가족의 다른 구성원에게 일을 위임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사조력자유무는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인의 취업상황에 대한 남편의 지지 정도는 취업 주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연숙 외 3인, 1991; 이정우 외 2인, 1994)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자녀의 찬성도가 취업한 주부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를 변인에 포함시키고자한다. 한편 부부간 의사소통도를 보면, 부부간의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1998).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관련 변인으로는 직업유형, 고용형태, 근무시간, 주말근무여부,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 취업동기를 선정하였다.

취업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직업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서비스·단순노무직·판매직의 취업주부가 전문관리직·사무직에 종사하는 취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는 결과(고은숙·김명자, 1993; 정문자·이미리·어주경, 1999)와 전문직 취업주부가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한다는 결과(김영철·정향균·이시형, 1989)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연구들은 판매직을 서비스나 단순노무직, 또는 비전문직의 일부로 포함시켜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판매직을 좀 더 세분하여, 대형할인점 판매원과 보험모집인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근무시간은 취업 주부들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역할과중과 스트레스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신(1998)의 연구에 의하면 전문직, 생산직 부인의 경우 모두 근무시간이 길수록 역할과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희금·이연숙(1998)에서도 근무시간이 긴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가정 및 직장 생활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동기를 보면, 가계의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생산직 기혼여성들은 가정 및 직장생활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조희금·이연숙, 1998),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할 경우 역할갈등이 높거나(임정빈·정혜정, 1986), 비자발적인 동기에서 취업한 주부가 시간 및 긴장갈등이 높았다(이기영·구혜령, 1992).

이 외에도 고용형태, 주말근무여부,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를 직업관련 변인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연구들이 적어 변인들의 영향력이 각 하위영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매직 취업주부들의 역할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분류하여, 각 변인들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판매직 취업주부가 인지한 전체 및 하위영역별 역할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판매직 취업주부가 인지한 전체적인 역할스트레스 및 하위영역별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직업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2. 조사도구의 구성

역할스트레스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들(김기현, 2000; 김명자, 1992; 신기영, 1999; 이형실, 2001, 장윤옥, 1992, 전영자, 1993; 조은숙, 1997; 조희금, 1995; Pearlin & Schooler, 1978)에서 하위영역별로 역할스트레스 문항을 선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는 어머니 역할스트레스($\alpha=.91$), 가사 역할스트레스($\alpha=.87$), 아내 역할스트레스($\alpha=.82$), 딸·며느리 역할스트레스($\alpha=.93$), 직장인 역할스트레스($\alpha=.81$)로 구성(총25문항)하였으며 이는 5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및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척도³⁾

는 Hewitt와 Flett(1999)의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를 기초로 한 김기현(2000)의 연구를, 성역할태도 척도는 Osmond와 Martin(1975)의 SRA(sex role attitude) 척도와 DeMaris와 Longmore(1996), Kulik(1999)의 연구를 기초로 한 강기연(2000)의 연구를,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이정순(1991)의 연구를, 직업만족도는 이정우와 박미금(2000)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alpha=.76$),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alpha=.76$), 성역할태도($\alpha=.52$), 부부간 의사소통도($\alpha=.67$), 직업만족도($\alpha=.77$)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서 각각 4문항, 4문항, 7문항, 7문항,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고,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으며,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며,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직업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취업동기 척도는 선행연구(이연숙 외 3인, 1991; 조희금, 1995)를 토대로 경제적 취업동기(생활비 마련, 집 마련, 자녀의 교육비 마련, 빚을 갚기 위해서)와 비경제적 취업동기(일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시간활용을 위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로 나누었다. 근무시간의 양은 주당 총 근무시간을 측정하였다.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는 총 가계소득에서 주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판매직 취업주부란 판매직에 취업한 주부⁴⁾

준을 자기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자기 자신이 결점이나 실수,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엄격한 평가 및 비판을 가하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의미하며,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란 타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타인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그 기준을 완벽하게 평가하려는 개인의 심리적 성향을 의미한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측정 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하려고 애쓴다
 - ② 나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한다
 - ③ 내가 한 실수를 발견하면 속이 상한다
 - ④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측정문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나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한다
 - ②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 ③ 내게 중요한 사람들은 결코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된다
 - ④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 4) 한국직업표준분류(<http://www.nso.go.kr>)에 의하면, 판매 종사자는 도·소매상점이나 유사 사업체 또는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예술작품을 위하여 일정한 자세를 취하고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인 판매직 취업주부는 소매 방문 판매원 중 보험모집인과 종합 소매판매원 중 대형할인점의 판매원으로 하였다.

3)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란 과도하고 높게 비현실적인 기

이며, 동시에 어머니 역할, 가사 역할, 아내 역할 그리고 딸·며느리 역할을 모두 수행하고, 남편과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집 과정을 보면, 먼저 한국직업표준분류 기준에 따라 직종을 판매직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다음 사업장(S생명, K생명, D화재, E마트, G마트, L마트)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다.

자료수집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2002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에 걸쳐 본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먼저 연구자가 각 회사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의뢰를 하고 의뢰를 수락하면, 해당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의 취지 및 기입 방법을 설명한 후, 해당 담당자가 판매직 취업주부에게 기입방법을 설명하고 대상자들이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설문지는 총 450부를 배부하였고, 343부가 최종분석자료이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수, 중다회귀분석의 통제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정 및 직업관련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개인, 가정 및 직업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특성에는 주부 학력, 주부 연령, 맞벌이에 대한 태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성역할태도 등이 포함된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학력을 보면, 고졸이 69.1%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판매직 취업자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는 통계청 자료(2000)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연령은 35세 이상~45세 미만이 54.8%로 가장 많았다.

맞벌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75.2%가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를 보면 응답자의 43%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므로'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가

그리고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독자적 소득환산과 근무시간 규정이 모호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5) 좋은 점이 더 많다 : 경제적인 도움(43.0%), 자아실현(20.7%), 규칙적인 생활로 부지런해짐(10.5%)

나쁜 점이 더 많다 : 자녀 및 가족에게 소홀/대화부족(19.4%), 개인적인 시간 부족(4.1%), 건강상의 이유(1.3%)

구 소득을 높이기를 원하는 주부들의 사회 진출요구와 맞물려, 앞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 가정 및 직업관련 특성 (N=343)

일반적 특성	범주	빈도(%) / 평균	
개인관련 특성	주부 학력	고졸	230(69.1)
		전문대졸	52(15.6)
		대졸 이상	51(15.3)
	주부 연령	35세 미만	84(24.5)
		35세 이상~45세미만	188(54.8)
		45세 이상	71(20.7)
맞벌이에 대한 태도	좋은 점이 더 많다	252(75.2)	
	나쁜 점이 더 많다	83(24.8)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1점-5점)		4.05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1점-5점)	3.25	
	성역할태도 (1점-5점)	3.31	
가정관련 특성	남편직업 유형	기능 및 판매서비스직	83(24.3)
		사무직	119(34.8)
		자영업/공업	80(23.4)
		전문관리직	60(17.5)
	가사조력자 유무	없다	226(68.3)
		있다	105(31.7)
	월평균 가계소득 (만원)		351
	취업에 대한 남편찬성도 (1점-5점)		3.62
취업에 대한 자녀찬성도 (1점-5점)		3.36	
부부간 의사소통도 (1점-5점)		3.09	
직업관련 특성	직업유형	대형할인점 판매원	192(56.0)
		보험모집인	151(44.0)
	취업동기	경제적	213(62.3)
		비경제적	129(37.7)
	고용형태	정규직	136(42.2)
		비정규직	186(57.8)
	주말근무 여부	한다	239(71.3)
		하지 않는다	96(28.7)
	취업중단 의사	없다	227(66.8)
		있다	113(33.2)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 (%)		39	
현 직장근속기간 (개월)		39	
주당 근무시간 (분)		490	
직업만족도 (1점-5점)		3.18	

*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을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4.05점(5점 만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3.2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는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역할태도는 5점 만점에 3.31점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련 특성에는 남편의 직업유형, 가사조력자 유무, 월평균가계소득, 취업에 대한 남편찬성도, 취업에 대한 자녀찬성도, 부부간 의사소통도 등이 포함된다.

우선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남편 직업유형을 보면, 사무직이 34.8%로 가장 많았

으며, 그 다음은 기능 및 판매서비스직(24.3%)과 자영상공업(23.4%)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가사조력자 유무를 보면, 가사조력자가 없다는 가정이 68.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 가정의 월평균가계소득은 351만원정도였다. 통계청의 '2001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에 사는 맞벌이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23만8000원이라는 결과(국민일보, 2002년 3월 2일)와 비교해 볼 때 다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취업에 대해 남편이나 자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남편의 찬성도(3.62점)가 자녀의 찬성도(3.36점)보다 높게 나타나, 가정 내에서 남편들이 아내의 취업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9점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직업관련 특성

직업유형, 취업동기, 고용형태, 주말근무여부, 취업중단의사,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 현 직장근속기간, 주당 근무시간, 직업만족도를 통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직업관련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취업동기는 경제적인 이유(62.3%)가 더 많았다. 경제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17.5%)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여성의 취업동기 중 경제적 동기가 제일 높게 나타난 한국여성개발원(2000)의 「여성통계연보」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판매직 취업주부도 역시 경제적인 이유에서 취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57.8%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비정규직은 시간제근무나, 파트타임직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혼여성의 파트타임직은 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관행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30대 중반 전후의 여성으로서 막내 자녀 취학을 전후 한 대다수의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취업유형은 비정규 파트타임직으로 나타남을 볼 때(김태홍, 1996), 기혼 여성들은 정규직의 취업보다는 가사노동·양육 등의 가사와 취업세계가 양립될 수 있는 임시직 파트타임직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71.3%는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

6) 경제적 취업동기 : 생활비 마련(17.5%), 집 마련(7.6%), 자녀의 교육비 마련(34.1%), 빚을 갚기 위해서(2.9%)
비경제적 취업동기: 일하는 것이 당연하므로(10.8%), 시간활용을 위해서(10.5%),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16.4%)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를 보면 평균 39%정도로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비전문직에 취업한 경우, 총 가계소득에서 주부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라고 한 허경옥(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직업만족도를 보면 3.1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2.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 영역 중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어머니 역할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아내 역할, 가사 역할, 딸·며느리 역할 순으로 낮아졌으며,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취업여성들은 부모역할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며, 직업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형실의 연구결과(2001)와 일맥상통한다.

다른 역할스트레스보다 어머니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부부가 함께 취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성은 어머니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탁아시설이나 육아휴직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등도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보이며, 특히 자녀교육이나 양육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문화도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

(N=343)				
변인	하위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역할스트레스	어머니 역할	339	3.25	.95
	아내 역할	339	3.00	.92
	가사 역할	330	2.83	.80
	딸·며느리 역할	336	2.32	1.10
	직장인 역할	337	2.17	.80
	전체	309	2.78	.67

*빈도수의 차이는 무응답을 missing data로 처리하였기 때문임

한편, 가정 내 역할에 비해 직장인 역할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직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희금·이연숙(199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 대상자가 판매직 취업주부임을 고려해 볼 때, 판매직 취업주부는 직업적으로 전문적 능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주부에 비해 직업적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 판매직의 특성상 주로 정해진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며, 시간제 근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결국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들은 직업 역할에 비해 어머니, 아내 등 의 가족 내 역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취업주부들이 남성처럼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남성보다 가족 내 역할 즉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등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판매직 취업주부의 개인관련변인, 가정관련변인, 직업관련 변인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성역할태도, 취업에 대한 남편 찬성도, 주당 근무시간, 취업동기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설명력은 24%이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들은 어머니 역할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취업에 대한 남편찬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낀다는 결과는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결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남편들이 부인의 취업에는 찬성하더라도 자녀양육 등의 실제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분담도가 낮다는(이미숙, 1995) 연구결과와 배우자의 지지 중 '취업한 상태를 지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지지'는 다소 높은 편이나 '직무로 인해 바쁠 때 가사분담을 해준다'는 것은 이보다 낮은 편이라는 연구결과(이수진·이기영, 2001)가 이것을 뒷받침해준다.

가사 역할스트레스는 모든 독립변인을 고려했을 때, 직업관련 변인 중 직업유형, 주당근무시간, 취업동기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약 18%이다. 대형할인점에 판매직으로 근무하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근무시간이 길수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는 가사 역할스트레스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아내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주당 근무시간, 취업동기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약 19%이다. 즉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

<표 4> 판매직 취업주부의 개인관련변인, 가정관련변인, 직업관련변인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N=343)

독립변인	종속변인		어머니역할 스트레스		가사역할 스트레스		아내역할 스트레스		딸·며느리 역할 스트레스		직장인역할 스트레스		전체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개인관련변인														
주부의 학력	-.056	-.095	-.041	-.073	-.011	-.024	-.021	-.030	-.000	-.001	-.021	-.054		
주부의 연령	-.032	-.211**	-.006	-.046	-.020	-.161*	-.014	-.080	-.025	-.195**	-.021	-.207**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성향	.099	.058	-.097	-.060	-.097	-.068	-.116	-.057	-.300	-.203**	-.074	-.063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	.057	.043	.134	.107	.149	.135*	-.019	-.012	.092	.079	.091	.098		
성역할태도	.315	.169**	-.012	-.007	.189	.120	.085	.039	.068	.043	.127	.099		
가정관련변인														
가사조력자 유무	.098	.048	.104	.055	.112	.067	-.123	-.052	.214	.124	.104	.075		
취업에 대한 남편찬성도	.174	.148*	-.023	-.021	.016	.017	-.021	-.015	.094	.093	.054	.068		
취업에 대한 자녀찬성도	-.121	-.115	-.037	-.038	-.130	-.151	.069	.057	-.160	-.178	-.103	-.145		
부부간 의사소통도	-.272	-.144	-.149	-.084	-.178	-.112	.070	.032	-.026	-.017	-.122	-.093		
직업관련변인														
직업유형	.185	.096	.322	.175*	.092	.058	.397	.175	-.067	-.041	.158	.120		
고용형태	-.020	-.011	.086	.047	-.153	-.096	.374	.165	.134	.081	.046	.036		
주당 근무시간	.013	.158*	.001	.135*	.001	.196**	.000	.008	-.000	-.127	.000	.115		
주말근무여부	.203	.094	.259	.125	.063	.036	-.028	-.011	.038	.020	.151	.102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	.210	.038	.278	.053	.042	.009	.070	.011	.737	.156*	.312	.083		
취업동기	.312	.162**	.301	.164**	.200	.125*	.261	.015	.142	.086	.238	.179*		
상수	3.019		3.275		3.153		2.514		4.039		3.189			
F-value	4.844***		3.342***		3.316***		1.293		3.066***		4.180***			
R ²	.244		.184		.186		.080		.171		.232			

가변인 기준집단 : 가사조력자유무(유) 직업유형(보험판매직) 고용형태(비정규직) 주말근무여부(아니오) 취업동기(비경제적)

* P<.05 **P<.01 ***P<.001

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아내 역할스트레스가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타인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아내 역할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란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준을 부과하고 그 기준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한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의미 있는 타인이란 남편이며, 타인에 대해 완벽을 기하는 판매직 취업주부일수록, 남편에 대해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좌절감이 아내역할스트레스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역할, 가사 역할, 아내 역할스트레스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당근무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들이 가정생활과 직장 일 사이에서 시간과 에너지의 절대적 부족 때문에 역할 과중을 겪게 되며, 이러한 역할과중은 그들이 경험하는 과중한 스트레스의 원천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취업주부에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정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역할스트레스가 커진다는 선행연구(Voydanoff, 1988)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유연 및 탄력근무제 등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확대·실시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뿐만 아니라 취업주부의 시간과 에너지 부족에 따른 역할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부 자신의 가사노동 수행 표준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특히 전적으로 주부에게 부담 지우는 가정역할 수행 부담을 남편과 공유하도록 해야하며, 가사노동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기업과 사회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직장인 역할스트레스는 주부의 연령,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7%이다.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크다는 연구결과는 생산직 주부의 경우, 주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나 집안일 때문에 직장생활에 부담을 크게 느낀다는 조희금·이연숙(1998)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경우, 취업주부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역할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을 건설적으로 추구하려는 경우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선행연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특히 실패의 경험과 상호 작용하여 부정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1;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유성은·권정혜, 1997 재인용).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판매직 취업주부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높을수록 오히려 역할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이 건설적으로 추구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벽을 추구할 때,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없어 결과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심층적인 후속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부의 가계소득 기여도가 높을수록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대상자의 가계소득 기여도 범위는 약 9%에서 100%로 나타났다. 결국 판매직 취업주부의 경우, 주부의 소득은 주부에게 자원으로 작용하여 부부간의 역할긴장을 낮춘다는 연구결과(Spitze, 1988)와 다름을 알 수 있다. 결국 판매직 취업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오히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함을 의미하며, 이런 책임감으로 인해 직장인 역할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조사대상의 2/3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역할스트레스는 취업주부의 연령, 취업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3%이며, 이는 선행연구 결과(조희금·이연숙, 1998; 임정빈·정혜정, 1986; 이기영·구혜령, 1992)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관련 변인별로 정리해 보면, 개인관련 변인 중 주부의 연령은 어머니 역할, 아내 역할, 직장인 역할, 전체 역할스트레스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직장인 역할스트레스에,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성향은 아내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쳤고, 성역할태도는 어머니 역할스트레스의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 변인 중에는 취업에 대한 남편의 찬성도만 어머니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관련 변인을 보면, 직업유형은 가사 역할스트레스에만 유의하게 나타나, 보험판매직에 비해 대형할인점 판매직의 취업주부가 가사 역할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근무시간은 어머니 역할, 가사 역할, 아내 역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가계소득기여도는 직장인 역할스트레스에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동기는 어머니·가사·아내 역할 및 전체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경우 스트레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기혼여성의 취업은 인적 자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취업주부들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이질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들은 취업주부를 전체 동질집단으로 다루거나 혹은 전문직, 비전문직의 두 집단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체 기혼 취업여성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판매직 취업주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 연구는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역할스트레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직업관련 변인으로 구성된 15개 변인이

역할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는 어머니역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아내 역할, 가사 역할, 딸·며느리 역할, 직장인 역할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들에게 직업인 역할은 어머니, 아내, 가사, 딸·며느리의 가정 내 역할에 더해서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일 뿐, 직업역할로 인해 자신이나 가족원의 생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역할에 비해 어머니, 아내 등의 가족 내 역할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취업 시에 발생하는 역할과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주부를 포함한 가족들의 여성의 취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여성의 취업을 단순한 경제적 인 보조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성도 직업인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더 이상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영역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가정과 직장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남편에게 가사 일이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나누어 맡도록 요구하고, 자연스럽게 가정 내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자녀들에게는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공동생계담당자로 인식할수록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부인의 경우, 자신을 가정의 공동생계담당자로 인식할수록 가사노동에 덜 참여하였다는(권영인·이숙현, 2000)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인식전환을 위한 부부 및 가족원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가정생활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체 역할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과 취업동기로 나타났다. 그 중 주부의 연령은 어머니 역할·아내 역할·직장인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학자들은 맞벌이 주부의 가정 내 역할과 직장인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가정생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기업에서 신입 주부들을 교육시킬 때, 업무에 관한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한다면 역할과중으로 인한 역할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보험모집인과 대형할인점 판매직 취업주부의 경우, 아내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찬성도가 높을수록 어머니 역할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역할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취업주부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취업에 대한 찬성도가 클수록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 정도도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남편들은 가계의 소득창출을 위한 취업에는 찬성을 하지만, 부인의 직업적 특성상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부인을 직업인으로 인식하지 쉽다. 따라서 핵가족화로 인해 다른 가족원의 도움없이 부부 둘만의 힘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남편

과 자녀 양육 등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주부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어 어머니 역할스트레스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역할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적 자원이 부족한 판매직 취업주부에게 남편의 태도 및 역할은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취업주부 남편의 의식 혹은 태도의 변화에 교육의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다중 역할로 인한 역할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주부들의 사회진출요구와 맞물려 주부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문화일보, 2002년 9월 11일 10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비중이 커지면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증가시키는 입장이며(중앙일보, 2002년 8월 27일 54면), 기혼여성은 자녀 양육기를 거치고 나서 재취업하고자 할 때 사무직보다는 비정규직일지라도 손쉽게 취업할 수 있는 판매직 등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과 기혼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판매직 등의 주부 취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오히려 기혼여성의 취업 시에 발생하는 역할과중과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고용형태로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가 채택한 '비정규 근로자 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동아일보, 2002년 5월 7일 29면).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근로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상용하는 동일 노동시간과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앞으로 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정관련변인으로 남편의 가사분담의 실제적인 측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판매직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도 직종별로 세분화된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각 기업의 사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2년 5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12월 3일

【참 고 문 헌】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지·의사결정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은숙·김명자(1993). 취업부인의 스트레스와 내의통제성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45-60.
- 권영인·이숙현(2000). 맞벌이 부부의 생계담당자 역할의식과 가사역할 수행. *생활과학논집*, 14, 49-59.
-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
-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6.
- 김영철·정향균·이시형(1989). 일반 생활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 증상 및 신체 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4-289.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홍(1996). 여성의 재취업구조와 고용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96-3 연구보고서*
- 김혜경·신현옥(1990). 제조업 생산직 기혼여성노동의 상태와 문제. *한국여성연구호* 편. *여성과 사회*(282-318). 서울 : 창작과 비평사.
- 박성옥·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의 일과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2-25.
- 서지원·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지속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99-110.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옥선화(2000). 중년기 기혼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의 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38(8), 29-51.
- 안선자·이정우(1996). 직업지위가 낮은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85-200.
-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 경문사
- 유성은·권정혜(1997). 완벽주의적 성향, 사회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중년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6(2), 67-84.
- 윤미립·이기영(1995). 취업주부의 자녀교육과 관련된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관리 전략.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 20, 11-20.
-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 이명신(1998). 맞벌이 부인의 가족지원 서비스 필요도 결정요인 : 전문직과 생산직 모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36권, 199-227.
- 이미선(1995). 전문·사무직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관리방안 및 가사노동 관리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 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수진·이기영(2001). 기혼 여성 재택근무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 직장 근무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47-66.
- 이연숙·유가호·이순형·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 및 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31-146.
- 이은희(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맞벌이 남녀의 대처전략과 결혼만족도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45호, 288-314.
- 이정순(1991).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박미금(2000). 도시 기혼남녀의 직업생활관리 및 직업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술원논문집(자연과학편)*, 39, 171-205.
- _____. 황경혜·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15.
- 이형실(2001). 기혼 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2.
- 임정빈·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93.
- 임혜경·임정빈(1995). 취업주부의 직업-가정갈등, 가사노동사회화, 그리고 가정관리 만족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5.
- 장윤옥(199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교직주부의 시간제약지각이 역할갈등과 시간 제약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55, 151-178.
- 전영자(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이미리(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_____. 이미리·어주경(1999).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6.
- 정순희(2001).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취업중단의사 관련변수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3), 35-45.
-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정도 및 지각된 대처 효율성 및 관련 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희금(1995). 생산직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건강상태와 대처방안과의 관계-대도시 생산직기혼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147-159.
- _____. 이연숙(1998).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5.
-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전략과 역할 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www.nso.go.kr
-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집계결과*. www.nso.go.kr
- 한국여성개발원(1997). *1997 여성통계연보*.
- _____. (2000). *2000 여성통계연보*.

- 허경옥(2001).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의 기여도 조사분석. *소비문화연구*, 4(1), 45-65.
- 현정혜·박혜인(1992). 대구지역 비공식부문 취업여성의 가족생활과 일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4), 183-202.
- 경향신문(2001). 국민체감 의식조사 발표, 여성 삶 최대 걸림돌 '일과 육아' 40%. 2001. 7. 23. 33면.
- 국민일보(2002). 2001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 2002. 3. 2. 1면.
- 내외경제(2001). 할인점 파트타임어 주부들 몰린다. 2001. 8. 25. http://www.ned.co.kr/site/data/html_dir/2001/08/25/200108250019.asp.
- 동아일보(2000). 퇴출시대 생계형 주부취업급증. 2000. 11. 8. 30면.
- 동아일보(2002). 노사정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내용. 2002. 5. 7. 29면.
- 문화일보(2002). 비정규직 아줌마인력 뜨고 있다. 2002. 9. 11. 10면.
- 서울경제(2001). 전국할인점 200개 고지 눈 앞. 2001. 8. 30. <http://www.kines.or.kr/econ.cgi>.
- 중앙일보(2002). 포커스/급증하는 비정규직 노사 또 다른 '너관/ 勞 "줄여야" 使 "늘려야" 2002. 8. 27. 54면.
- 한겨레(2001). 매킨지 '우먼 코리아' 보고서 / 육아부담이 여성인력 발목을 잡는다. 2001. 4. 25. 19면.
- 한국일보(2001). 국민 4명중 3명 '맛벌이 희망'. 2001. 7. 21. 2면.
- Barnett, R. C.(1999). A new work-life model for the twenty first centur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 Social Science*, 56, 143-158.
- Duxbury, L., Higgins, C. & Lee, C.(1994). Work-family conflict : a comparison by gender, family type,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Family Issues*, 15, 449-466.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1991). Perfectionism, self-actualization, and personal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147-160.
- _____, Hewitt, P. L., Blankstein, K. R., & O, Brien, S.(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2, 61-68.
- Googins, B. & Burden, D.(1987). Vulnerability of Working Parents : Balancing Work and Home Roles. *NASW*, 32(4), 295-300.
-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 Viking.
- Monat, A. & Lazarus, R. S.(1985). *Stress and coping, an anthology*.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Small, S., & Riley, D. (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work spillover into family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61.
- Spitz,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595-618.
- Vannoy-Hiller, D., & Philliber, W. W.(1989). *Equal Partners : Successful women in marriage*.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3), 881-892.
- Warner, R. L., Lee, G. R. & Lee, J.(1986). Social organization, spousal resources and marital power ; A cross-cultur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2), 121-128.
- Wheelock, J.(1990). *Husbands at Home : The Domestic Economy in post-industrial Society*. London : Routledge.
- Wiersma, U. J., & Van den Berg, P.(1991). Work-home role conflict, family climate, and domestic responsibilities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1207-1217.